

필리핀 한인 재외동포의 구술생애사를 통해 본 민족정체성*

김 동 업**

국문초록

본 연구는 필리핀 한인동포 김찬용(가명)의 생애사 인터뷰 자료를 분석하여 그의 민족정체성의 특징에 대해 분석하였다. 구술자는 자신의 민족정체성을 한인이나 필리핀인에 두지 않고 국제인으로 간주함으로써 탈국가화 성향을 나타냈다. 이러한 탈국가적 성향을 가지게 된 배경을 그의 생애사적 관점에서 보면 구술자의 가족환경과 성장배경이라는 개인적인 요소와 거주지 필리핀의 구조적인 요소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볼 수 있다. 특히 거주지 필리핀은 다양한 측면에서 기존의 많은 한인 재외동포가 거주하는 중국, 일본, 미국과 같은 국가들과 다른 거주 환경을 제공한다. 이처럼 다른 거주 환경은 필리핀 한인 재외동포의 민족정체성이 다른 국가에 거주하는 한인 재외동포의 민족정체성과 구별되는 이유가 된다. 김찬용의 사례는 필리핀 한인 재외동포 민족정체성의 일면을 보여줄 뿐 전체를 대변하지는 않는다. 그러나 자신의 성장배경이라는 특수성과 필리핀이라는 거주지 공간이 제공하는 일반성이 혼합되어 나타난 사례로 볼 수 있다.

주제어: 필리핀, 한인 재외동포, 민족정체성, 국제인, 구술생애사

* 줄고에 대해 귀중한 조언을 해 주신 익명의 심사위원님들께 감사의 뜻을 전합니다.

** 부산외국어대학교 부교수. dykim@bufs.ac.kr

I. 머리말

우리나라 외교부가 2017년 기준으로 집계한 재외동포 현황에 따르면 전세계에 흩어져 있는 재외동포 규모는 약 750만 명이다. 여기서 ‘재외동포’는 「재외동포법」 제2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정의에 따라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외국에 장기체류하거나 외국의 영주권을 취득한 사람,” 혹은 “국적에 관계없이 한민족의 혈통을 지닌 사람으로서 외국에 거주·생활하는 사람”을 지칭한다. 우리나라 재외동포 중 약 64%는 외국국적을 소지하고 있으며, 약 36%는 재외국민으로 살고 있다. 가장 많은 재외동포가 거주하는 국가는 중국으로 전체 재외동포 중 약 34.3%에 이른다. 이어서 미국에 약 33.5%, 일본에 약 11.0%, 캐나다에 약 3.2%, 그리고 우즈베키스탄, 호주, 러시아, 베트남, 카자흐스탄, 필리핀 순으로 나타난다.

재외동포 분포 현황에서 볼 수 있듯이 집중적으로 분포되어 있는 지역은 중국, 일본, 구소련 등 동북아시아 지역이고, 또한 미국, 캐나다, 호주 등 미주·오세아니아 지역임을 알 수 있다. 동북아시아 지역으로의 한인 이주는 일제 식민통치라는 특수한 역사적 맥락 속에서 발생하였으며, 미주·오세아니아 지역으로의 이주는 경제적 기회를 찾아 저개발 국가에서 선진 국가로 이동하는 노동이주의 일반적인 패턴에 따른 것으로 볼 수 있다. 반면 베트남과 필리핀과 같은 동남아시아 지역으로의 이주는 식민통치라는 역사적 맥락이나 선진국으로의 노동이주와는 다른 경우이다.

우리나라에서 재외동포에 관한 연구는 주로 중국, 미국, 일본의 사례들에 집중되어 있으며, 동남아시아 한인들에 대한 연구는 찾아보기 쉽지 않다. 재외동포에 관한 연구는 주로 이주와 적응, 그리고 이주민들의 정체성과 관련된 주제들이 다수를 이룬다. 근래에는 재입국 재외동포들의 한국사회 적응과 그들의 정체성 문제를 다룬 연

구들도 다수 나타나고 있다. 재외동포들의 생활환경과 그들의 정체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들은 다양하며, 주로 이주의 맥락과 거주국의 정책, 그리고 거주국 주류사회와의 관계 등에 따라 다르게 나타난다. 재외동포 민족정체성과 관련된 문제는 주로 이주민 1.5세대나 2세대 그리고 그 후손들에 대한 연구로 이어지고 있다.¹⁾

이와 같은 재외동포 관련 연구의 맥락 속에서 동남아시아 한인동포에 대한 연구는 우리나라 재외동포 연구의 지평을 확장한다는 의미가 있다. 기존의 연구들이 주로 중국, 미국, 일본, 구소련 등과 같은 국가에서 세대를 거쳐 거주하면서 국적을 취득하거나 혹은 국적과 관련하여 갈등하는 재외동포의 문제를 다루고 있다. 반면 대부분의 동남아시아 한인동포들은 다른 맥락에서 또한 다른 여건을 가진 지역으로 이주한 경우이다. 대부분의 동남아시아 국가들이 공식적으로 이민을 받아들이지 않는 상황에서 한인동포들은 한국국적을 유지한 채 장기체류하는 경우가 많다. 또한, 경제발전 수준이나 국제적 위상이 우리나라보다 오히려 낮다는 점은 동남아시아 한인동포들의 현지 적응과 삶에 영향을 미친다. 이처럼 동남아시아 한인동포에 대한 연구는 또 다른 유형의 재외동포에 대한 연구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연구방법으로서 구술생애사 분석은 참여자가 살아온 삶의 경험을 구술하고 그 맥락에서 갖고 있는 의미를 이해하는 방법이다(김영천·한광웅 2012: 17; 남혜경·김영순 2018: 672-3). 구술생애사 연구가 가지고 있는 학문적 함의로는 우선, 개인의 경험과 기억이 사회적이고 역사적인 기억으로 치환이 가능하다는 것이며, 둘째로 개인의 사회적 위치성과 관련해서 주체로서의 개인이 삶을 주도적으로

1) 1.5세대는 한국에서 태어나서 7세부터 18세 사이에 미국으로 건너온 세대를 의미하며, 2세대는 6세 이전에 부모를 따라 이주하였거나 현지에서 출생한 경우를 말한다(윤인진·임창규 2008).

조직해내는 행위성(agency)을 전면에 드러낼 수 있다는 점이다(윤택림 1993: 290; 이은정 2019: 6). ‘기억의 환기’(recall of memories)는 지나가버린 사건이나 삶의 양태 및 인식, 태도, 신념, 믿음, 가치지향 등과 같은 비가시적인 문화 양상들을 현재로 불러내어 살아 생동감 넘치게 만드는 방법 중의 하나이다(박경용 2014: 6). 인간이 살아오면서 겪은 경험이나 사건들을 구술하면서, 삶의 의미를 새롭게 발견한다는 것이다. 즉, 구술자는 이야기라는 틀 속에 자기경험들을 배열하여 의미있는 전체로 조직화하고, 이를 통하여 삶을 이해 가능한 것으로 전환시킨다. 이는 삶에 대한 이야기의 내용과 형식 속에서 인간의 정체성을 발견할 수 있는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음을 말해준다(이만영·김수연 1995: 86). 따라서 구술생애사 분석방법은 재외동포 민족정체성 연구의 방법으로 유효하다고 볼 수 있다. 특히 동남아시아와 같이 이주의 역사도 그다지 길지 않고 이주민의 규모도 크지 않으며, 또한 한인동포의 이주와 적응, 생활사에 대한 기록이나 연구가 희소한 경우 활용할 수 있는 방법 중의 하나이다. 더구나 점차 사라져가는 이주 원로세대들의 구술 자료를 남기는 것은 의미 있는 일이기도 하다.

본 연구에서는 필리핀 한인동포 김찬용(가명)의 생애사 인터뷰 자료를 분석하여 필리핀 한인동포의 민족정체성에 대해 고찰해 보고자 한다. 필자가 김찬용의 생애에 관심을 가지게 된 계기는 그와 여러 차례 만나 대화를 나누면서 그의 특별한 삶의 여정과 자신의 정체성에 대한 남다른 생각 때문이었다. 그는 스스로를 ‘한국인’이면서 또한 ‘필리핀인’으로 표현하기도 하고, 또한 국가나 민족의 틀을 넘어서 ‘국제인’으로 자기 정체성을 밝히기도 했다. 김찬용은 1948년 출생하여, 14살 때부터 해외에서 생활했으며, 1967년에 유학으로 필리핀에 와서 필리핀 여성과 결혼하여 정착하였다. 본 연구에서 사용한 구술인터뷰 자료는 필자가 2017년 8월과 2018년 7월 두 차례 인

터뷰한 내용이다. 두 번째 인터뷰 당시 김찬용은 몇 달 전 발견된 말기암으로 투병하고 있는 상황이었으며, 결국 2019년 4월에 필리핀에서 생을 마감했다. 그의 생애와 민족정체성이 필리핀 한인동포 전체를 대변한다고는 볼 수 없다. 그러나 그의 특별한 삶의 여정 속에서 필리핀이라는 공간이 그의 민족정체성에 어떠한 영향을 주었는지는 필리핀 한인동포를 이해하는 데에 중요한 시사점을 줄 수 있다.

재외동포 민족정체성은 다양한 요소들에 의해 영향을 받는다고 볼 수 있다. 이들 요소 중에서 김찬용의 구술생애사를 분석하는 기준으로서 세 가지를 중점적으로 다루고자 한다. 우선 개인의 민족정체성 형성에 소속집단 특히 가족의 영향이 강하다는 점에서 부모와의 관계를 살펴볼 것이다. 둘째로 필리핀이라는 공간적 요소, 즉 국가의 이주민에 대한 정책과 이주민으로서 필리핀 주류사회와의 관계를 살펴볼 것이다. 셋째로 다른 공간으로 이주한 한인동포들의 민족정체성 문제를 기존 연구를 중심으로 살펴보고, 이를 김찬용의 사례와 비교함으로써 맥락의 차이와 함께 유사성과 특이성을 도출할 것이다. 본 논문의 구성은 본 머리말에 이어지는 제2절에서는 재외동포 민족정체성의 개념적 논의와 함께 구술생애사 분석방법에 대해 소개할 것이다. 제3절에서는 김찬용의 생애사를 소개하고, 그의 민족정체성이 어떠한 특징을 가지며, 또한 왜 그러한 정체성이 형성되었는지에 대해 분석하고 비교해 볼 것이다. 마지막으로 맺음말에서는 재외동포 민족정체성 문제에 있어서 본 연구가 가지는 의미를 요약하여 제시할 것이다.

II. 재외동포 민족정체성과 구술생애사 방법론

정체성(identity)이란 용어는 라틴어 ‘*identitas*’와 희랍어 ‘*tautotes*’

에 어원을 두고 있으며, ‘동일성’(sameness)과 ‘자기성’(selfhood)의 뜻을 동시에 포함한다. 동일성으로서의 정체성은 내가 무엇인지(being)라는 근본적인 질문에 관한 것으로서 변화하지 않는 속성을 가진다. 반면 자기성으로서의 정체성은 내가 누구이고 무엇이 되어가는가(becoming)에 대한 대답으로서 변화하는 정체성의 특징을 갖는다(미셸 세르 외 2013: 66; 박승규 2013: 455). 불변의 속성을 가진 정체성은 주로 집단에 의해 집단적이고 통일적인 인식을 개인에게 부과하는 것이고, 변화하는 속성을 가진 정체성은 처한 환경에 따라 스스로가 자신을 규정하는 것이다. 내가 관계 맺고 있는 공간의 변화는 나의 정체성 형성에 영향을 주며, 인간이 생활하는 모든 시공간은 변화한다. 그런 점에서 사실 모든 정체성은 지속적으로 변화한다고 볼 수 있다. 즉 변화하는 정체성은 차이와 다름을 부각하는 방향으로 변화한다면, 변화하지 않는 정체성은 같음과 동일시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변화한다(박승규 2013: 463).

개인은 가족과 직업집단, 시민사회, 국가, 그리고 초국가적 공간에 동시적으로 귀속되고, 다양한 생활양식에 영향을 받으며 ‘나는 누구이며 나 자신을 어느 집단에 더 우선적으로 공속 할 것인가?’에 대한 답변을 통해 자신의 정체성을 표현한다(김왕배 2003: 55). 개인의 정체성 형성 작업에 있어서 가족과 국가는 중요한 행위자이다. 가족과 국가는 개인의 사회화 과정에서 중요한 행위자이기 때문이다. 또한, 개인은 사회적 관계 속에서 상호 공유하는 집단적 표상을 통해 자신의 정체성을 확인하기도 한다(홍태영 2011: 334). 한편 민족은 “동일한 역사적 공간, 신화, 기억, 집단, 문화, 경제 및 법률적 권리와 의무를 구성원 모두가 공유한 인류의 정치적 공동체”로 규정할 수 있다(Smith 1991: 14). 이러한 민족은 제도화된 정치 체제인 국가를 통해서 보다 공동체로서 완전해진다(조의행 2015: 114).

근대 민족국가는 민족정체성에 대한 강조를 통해 구성원들의 결

속력을 강화한다. 이러한 민족정체성에 대한 정의는 다양하다. 우선, 민족정체성을 한 개인이 어느 특정 민족공동체에 소속되어 있음을 지각하는 것으로 정의한다. 또한 주관적, 객관적 특징들을 바탕으로 자민족과의 동일화 과정과 타민족과의 상이점을 인식하는 과정을 통해서 민족정체성이 형성된다고 본다. 한편 민족적 자기 동일시, 소속감, 자신의 민족집단에 대한 태도, 사회적 참여 및 문화적 관습 등을 민족정체성의 핵심요소로 간주하기도 한다(이석인 2015: 193). 이처럼 민족정체성은 역사와 문화에 기초한 사회정체성이며, 조상 대대로 관계를 가지고 있는 한 집단에 대한 충성을 의미한다. 따라서 민족정체성은 내가 규정한 정체성이 아니라, 민족이 규정한 정체성이고, 그것이 나의 정체성으로 치환되는 것이다(박승규 2013: 462).

재외동포 민족정체성은 자신이 속한다고 가정하는 국민국가의 공간을 벗어나서 생활하면서 자신이 거주하는 공간의 환경과 그 속에서 자신이 처한 정치적, 사회적 상황에 따라서 다르게 나타난다. 이러한 정체성의 특징을 데이비드 허타트(2011: 146)는 ‘혼종적 정체성’으로 설명한다. 그에 따르면, 혼종적 정체성은 어느 곳에서도 고향처럼 편안하게 있을 수 있는 기괴하면서도 낮은 능력을 특징으로 하지만, 이 능력은 절대로 고향을 갖지 못하는 집이 될 가능성이 항상 있다는 것이다. 한편 홍태영(2011: 353)의 ‘탈주체화’ 개념도 재외동포 정체성의 일면을 보여준다. 탈주체화는 고정된 정체성 혹은 고정된 주체가 아니라 끊임없이 생성되는 정체성과 주체의 형성을 의미한다. 국가권력에 의해 주어진 민족정체성의 틀에서 벗어나 또 다른 위치와 관계들 속에서 새로운 정체성과 주체를 창조해가는 것이다.

재외동포는 자신이 처한 사회적 위치성에 따라 자신의 정체성이 변화하며, 그 사회적 위치성은 이주라는 과정을 통해 형성되는 공적, 사적인 지역적 공간과 역할의 변화에 따라 형성되는 사회적 관계성

을 의미한다. 특히 본국에서의 과거성에서부터 시작된 이들의 정체성은 정착국의 상황과 조건에 따라 적응하고 변화하는 양상을 나타낸다(박신규 2008: 51). 전세계에 흩어져 있는 한인 재외동포의 민족 정체성은 그들의 시공간적 기반의 차이에 따라 다양한 모습을 띠게 된다. 이들은 양쪽 사회의 가장자리에 위치하여 양쪽 사회 모두에서 내적 구성원으로서의 위치를 점유하고 있지 않다. 그러나 이들은 양쪽 사회 모두에서 연결점을 가지고 있으며 계속해서 양쪽 사회에서 그들의 위치를 생성하고 조정해나가려 한다(남혜경, 김영순 2018: 668). 한인 재외동포의 민족정체성에 관한 기존의 연구들은 이러한 위치성에 초점이 맞춰져 있으며, 이러한 위치성은 곧 거주 국가의 정책적 특성과 또한 주류사회와의 관계와 밀접한 관련이 있음을 볼 수 있다.²⁾

재외동포 민족정체성과 관련된 기존의 많은 연구들이 설문조사와 같은 정량적 방법을 사용하고 있다. 이는 해당지역 재외동포의 집단적인 민족정체성을 객관적으로 제시하기 위한 방안이다. 한편 개인의 구술 자료는 개인의 주관적 경험을 회상을 통해 현재로 불러내는 작업이라는 점에서 지극히 주관적이고, 또한 개인적일 수밖에 없다. 하지만 역설적으로 구술 자료의 가치를 바로 그 주관성과 개인성에서 찾기도 한다. 즉 구술 자료는 단순히 사람들이 했던 것만이 아니라, 그들이 하길 원했던 것, 그들이 하고 있었다고 믿었던 것, 그리고 그들이 했다고 지금 생각하는 것도 말해주기 때문이다(Portelli 1991: 50; 윤택립 2009: 513). 생애사 연구는 개인의 총체적 삶의 이야기를 포착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그 이야기를 통해 그 너머의 넓은 사회·역사적 맥락을 발견할 수 있다(민성은·최성호·김영천 2017: 472). 미국, 중국, 일본과 같이 대규모의 한인동포 1.5 혹은 2세대

2) 기존의 연구들을 중심으로 한인 재외동포의 민족정체성 문제를 소개한 내용은 본 논문의 III.2.1.2)을 참조하시오.

이상의 후손들이 존재하는 지역에서는 개별적 특성을 넘어 일반적인 특성을 발견하기 위한 정량적 연구가 유효하다. 그러나 동남아시아 국가들과 같이 이주의 역사가 그리 길지 않고, 또한 그 규모가 크지 않은 경우에는 유럽의 경우처럼 개인의 생애사 연구를 통한 접근이 유효한 방법으로 볼 수 있다.

생애사 연구방법에 관해서는 다양한 외국학자들의 논의가 국내 학자들에 의해 소개되고 적용되고 있다(김영천·한광웅 2012; 양영자 2013a, 2013b; 이효선·김혜진 2014; 이희영 2005; 최인혁·이영학 2015). 본 논문에서는 연구의 취지에 가장 적합하다고 생각되는 이효선·김혜진(2014)이 소개한 쉷제(F. Schütze)의 ‘이야기식 인터뷰’(narrative interview) 방식을 자료 수집과 분석방법으로 사용하였다. 이야기식 인터뷰는 표준화된 인터뷰로 이해할 수 없었던 인간과 사회의 실제성 영역을 발견하기 위해 평범한 사회구성원의 능숙한 의사소통 방법인 ‘이야기’를 방법론적 수단으로 활용한 것이다. 이야기를 통해서 형성된 생애사는 화자의 경험과 생애사건에 대한 의미 구성이 이루어진 것이기 때문에 그 속에는 화자가 자신의 삶을 구성해 나가는 의미구조가 반영되어 있으며, 이것은 필연적으로 화자의 정체성과도 연결된다고 본다(이효선·김혜진 2014: 259). 이러한 이야기식 인터뷰 자료의 분석방법으로 쉷제는 4단계 분석방법을 제시하고 있다:

1단계 형식적 본문 분석단계는 화자가 구성한 생애 이야기를 정확하게 이해하기 위해 화자의 이야기를 시대별 또는 사건별로 구분하여 일련의 순서에 따라 구성한다. 2단계 구조적 기술단계는 삶의 과정과 경험 등을 구조적으로 기술한다. 또한 화자의 구조적 특성도 고려하면서 경험들의 연대순과 연속성들을 구조화한다. 3단계 분석적 추론단계에서는 구조적인 기술을 바탕으로 해석적인 개념을 이끌어낼 수 있으며, 생애사의 형태가 구성되고

외부로부터의 이론상의 지식이 해석으로 포함될 수 있다. 단일사례의 경우는 이 단계에서 사례에 대한 재구성이 완성된다. 4단계 비교분석 단계는 복수사례연구 설계에서 각각의 사례들을 비교함으로써 보다 구체적이고 일반화되는 유형들을 구조화 할 수 있다(이효선·김혜진 2014: 260 재인용).

본 논문에서는 숫제가 제시한 분석방법의 4단계를 엄두에 두고 1단계와 2단계를 통합하여 구술자의 생애사를 구조적 관점에서 연대순으로 소개할 것이다. 그리고 3단계에서는 구술자가 진술한 민족정체성에 대한 견해를 그의 생애사 맥락 속에서 분석하고 이해할 것이다. 특히 구술자의 민족정체성에 영향을 준 부모와의 관계, 이주지 필리핀의 이민정책, 그리고 현지 주류사회와의 관계를 중심으로 분석할 것이다. 4단계에서는 비교적 관점에서 다른 필리핀 한인 재외동포 그리고 다른 지역 한인 재외동포 사례에 견주어 일반성과 특수성을 도출할 것이다.

Ⅲ. 김찬용의 구술생애사에 담긴 민족정체성

1. 김찬용의 구술생애사

필자는 본 생애사 인터뷰를 실시하기 전부터 필리핀 한인사회를 연구하면서 구술자와 여러 차례 만나 얘기를 나눈 적이 있다. 필자가 문자로 생애사 인터뷰의 목적을 설명하고 이에 응할 의향을 물었을 때, 그는 흔쾌히 허락했다. 아마도 필리핀과 한국에서 수차례 만나서 얘기를 나누면서 쌓인 신뢰 때문일 것이라고 필자는 추정한다. 약속한 시간에 구술자의 집을 찾아가 넓은 응접실 탁자에서 함께 음식과 음료를 나누면서 이야기를 시작했다. 구술 내용은 양해를 구하고 녹

음을 했다. 구술자는 목 부분에 생긴 암으로 인해 큰 소리를 낼 수 없는 상황이었다. 구술자는 목소리를 잃을 것을 감수하고 수술 받을 것을 권유하는 병원의 처방에 따르지 않고, 차이나타운에 있는 소문난 한의사에게 약을 처방받아 나름의 치료를 하고 있었다. 암이 이미 많이 진행된 터라 구술자도 자신이 언제 죽어도 이상할 것이 없다고 얘기했다. 필자는 구술자가 자신의 살아온 인생을 되새기며 스스로 정리할 수 있도록 특별한 질문의 틀에 구속되지 않고 자유롭게 이야기하는 방식으로 인터뷰를 진행했다. 일부 필요한 사항들은 구술자의 회고가 모두 끝난 후 간단하게 대화하는 형식으로 질문했다.

자신의 살아온 인생을 자유롭게 얘기해 달라는 필자의 주문에 대해 구술자는 자신의 생애를 나름대로 정리하여 4개의 챕터로 설명할 수 있다고 했다. 첫 번째 챕터는 한국에서의 14살까지의 삶이고 (1948-1961), 둘째 챕터는 이태리와 방콕에서 공부하던 시절(1961-1967), 세 번째 챕터는 필리핀에 혼자 와서 공부하고 또 직장생활하던 시절(1967-1986),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 챕터(1986-2019)는 현재 운영하고 있는 가방 사업에 뛰어들면서 시작된 삶이라고 했다. 이러한 4개의 챕터가 오늘날 구술자를 만든 것이라고 했다.

1) 생애사 제1챕터(1948-1961) - 해외이주 이전 한국에서의 유년기

구술자는 1967년 정부 관료로 있던 아버지와 근대교육을 받지 않은 어머니 슬하에서 3남 1녀 중 둘째 아들로 태어났다. 그는 부모님에 대해 이렇게 회고했다:

우리 아버지는 미국에 가서 석사학위를 받고, 가기 전에는 일본 사람들 밑에서 일했고, 어찌 보면 엘리트지. 어머니는 공부를 한 사람도 아니고, 전통적으로 중매해서 아버지와 결혼했어. 그러니 두 사람이 잘 어울리는 부부는 아니었지. 아버지는 늘 밖에 나가

서 엘리트 생활을 하셨고, 집안일이나 아이들에게 별다른 신경을 쓰지 않았어. 부모의 사랑이라는 게 별로 없는 환경에서 자랐지. 어머니에게서는 생존경쟁을 배웠어. 어머니는 옛날분이고 지식 이 없으니까 별로 커뮤니케이션도 없이 살았어...

우리 아버지가 영어를 해서 우리한테도 대디(daddy)라고 부르라고 했어. 아버지를 좋아하지는 않았지. 고등학교 끝날 때까지도 아버지와 관계가 좋지 않았어. 내가 공부를 안 해서 혼만 났지. 그런데, 내가 아버지가 나쁘다고 생각한 적이 없어. 모두 내가 잘못해서 야단맞은 것이라고 봐. 아버지와 나 사이에는 정이 없는 것 같아. 그런데 나와 내 아들과의 관계나 내 손주들과의 관계도 마찬가지로 정이 없어. 나는 그것이 환경이 그래서라기보다는 내 퍼스널리티(personality)가 그래서 그런 것이라고 봐.³⁾

구술자가 3살 때에 6·25전쟁이 발발했고, 1·4후퇴 때에 가족이 충청도 공주로 피난 가서 힘든 생활을 보냈다. 약 3년간 그곳에 머물면서 거지처럼 생활했고, 구술자는 영양실조에 걸려서 배가 개구리처럼 불렀던 것을 기억했다. 전쟁이 끝나갈 때 쯤 아버지가 미국 유학에서 돌아와 정부 장관의 비서관으로 일하게 되었고, 아버지를 따라 부산에 가서 잠시 살기도 했다. 엄마는 맨날 아버지한테 야단맞는 자신을 위로해 주는 사람이었다. 그런데, 그런 엄마가 예쁘지도 않고, 재주도 없고, 남보다 뛰어난 것도 없어서 자랑할 만한 것이 없는 그런 사람으로 생각했다. 3살 차이가 나는 형에 대해서는 친구처럼 아기자기한 사이는 아니었고, 형을 부를 때에도 동생처럼 이름을 불렀다. 형은 언제나 공부도 잘하고 칭찬받는 사람이었고, 구술자는 늘 야단맞는 사람이었다. 구술자는 자신이 그다지 사랑을 받고 자라지 못한 것으로 회고했다.

구술자가 중학교 1학년 말기까지 살았던 한국에서의 어린 시절 기

3) 김찬용은 한국어도 잘 하지만 영어를 더 편하게 사용한다. 인터뷰 중에도 영어를 많이 사용했으며, 본문에 제시한 녹취록 내용은 의미의 왜곡이 없는 범위 내에서 문체를 수정한 것이다.

억은 크게 별다를 게 없었다. 그저 동네에서 제기차기하던 것이나, 좁은 골목길에서 축구를 하던 것을 기억해 냈다. 그리고 서울에 살고 있었던 그는 방학 때이면 경기도 주네(의정부 지나서)에 있던 시골 집에 가서 한 달씩 지내면서 놀던 것을 기억하고 있었다. 국민학교 때에 우유 배급을 받아서 먹던 생각과 중학교를 다닐 때 4·19혁명이 일어나 학생들이 데모를 시작하자 학교에서 집에 가라고 해서 집에 가다가 종로 근처에서 데모하던 학생들을 봤던 것을 기억했다. 어렴풋이 방학 때마다 갔던 시골에 좋아하는 여자아이가 하나 있었다. 구술자가 외국에 가게 되어 연애편지를 썼는데, 답장은 받지 못했다고 했다. 해외로 떠나기 전날에 그곳에 찾아가서 그녀와 어색한 만남을 했던 것을 떠올렸다.

2) 생애사 제2챕터(1961-1967) - 이태리와 방콕에서의 청소년기

구술자는 자신의 인생이 여기까지 오게 된 이유로 아버지가 유엔(UN)기구에서 일하게 된 것을 꼽았다. 그는 가족이 모두 이태리로 간다는 말을 처음 들었을 때 흥분되고 좋았다고 했다. 한국에서 공부를 잘 하는 것도 아니고, 공부가 싫었는데, 도망가는 느낌이나 모험과 같은 느낌을 가졌다. 모험처럼 생각하고 뭣도 모르고 쫓아갔던 이태리에서의 생활은 다 어려움이었고, 또한 그에게 인종적 열등감을 가지게 만들었다.

우선 말도 통하지 않고, 또한 백인들에 대한 열등감을 가졌다. 백인은 멋있고, 동양인은 촌놈 같은 생각이 들었어. 백인들은 옷을 입어도 멋지고 세련되어 보였어. 얼굴색이 하얗고, 머리칼도 약간 곱슬머리이고, 매너나 걸음걸이조차도 동양인과 차이가 났지. 당시 주위에 동양인은 거의 없었어. 이태리에서 내가 길을 걸어가면 애들이 앞에 와서 놀렸어. 이태리 애들이 짓궂고 장난을 한 것인데, 나는 창피하게 생각했어. 언어도 그렇고 그런 면에서 열등감을 느꼈지. 백인들이 나보다 우월하다는 생각이 들었어.

구술자는 이태리에서의 가족생활도 그다지 행복하지 않았던 것으로 기억했다. 특히 아버지와 엄마 사이의 불화가 잦았는데, 그것은 둘 사이에 너무 차이가 나서 그랬던 것으로 생각했다. 아버지는 엘리트이고 엄마는 초등학교도 못 나와서 엄마가 아버지에게 열등감이 심했다는 것이다. 엄마는 파티에 가면 말도 못 해서 주눅이 들어 있는데, 아버지는 영어, 일어 모두 잘 해서 잘 어울렸고, 그런 상황이 가정불화로 이어졌다. 주말에는 가족이 함께 여행을 가곤 했는데, 엄마가 샌드위치를 준비해서 주로 유적지를 찾아 다녔다. 감정의 변화가 심한 엄마는 화가 나면 말을 하지 않는데, 그러면 아버지가 또 뭐라고 해서 싸움이 되었다. 그래서 구술자는 아버지와 엄마를 떠났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다고 한다.

이태리에서 약 2년 반 정도 살다가 아버지가 방콕 사무소로 발령을 받아서 구술자도 태국으로 이주하게 되었다. 구술자는 방콕에 가게 된 것을 좋아했다. 이태리에서 백인들에게 위축되어 있다가 방콕에 가면 맞먹을 수 있겠구나 하는 생각에 좋았다고 했다. 구술자는 1964년에 방콕에 와서 약 3년 반을 그곳에서 지냈다. 방콕에서 국제학교(IS)를 다녔는데, 대부분 학생이 아시아인들이었고, 미국인들보다 아시아인이 많으니 위축이 되지 않았다고 했다. 구술자는 영어로 일상 대화는 가능했지만, 강의를 잘 이해하지는 못했고, 낙제해서 졸업도 못 했다. 그러자 아버지가 방콕에 있는 영어로 수업하는 한 칼리지를 찾아가 확장과 얘기해서 자신을 입학시켰다. 거기서 1학년 1학기를 다녔는데 공부는 못 했지만, 축구를 잘해서 선수처럼 중요한 사람이었고, 주위에는 항상 여자가 따라 다녔다고 회고했다.

공부하기 싫어하는 자신은 늘 아버지의 근심거리였고, 또 그런 문제를 해결해 주는 것도 아버지였다. 학교에서 모두 낙제를 맞았으니 아버지가 고민 끝에 구술자에게 미국으로 가라고 했다. 그러나 구술자는 미국에 가는 것은 싫고, 오히려 한국에 가기를 원했다고 했다.

그러나 당시에는 구술자와 같이 외국에 머물던 사람이 한국에 들어가 쉽게 대학을 갈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다. 그러던 참에 방콕을 방문한 아버지의 필리핀 지인의 권유로 구술자를 필리핀으로 보내기로 했다. 그 필리핀인은 나중에 구술자의 양아버지(godfather)가 되었다. 그는 삼림에 관한 책을 출판하는 사람이었는데, 구술자의 아버지가 세계식량기구(FAO) 삼림 책임자라서 그에게 데이터를 제공하고 있었다. 구술자는 마닐라로 오게 되면서 가족과 헤어지게 되었다. 구술자의 형은 이미 이태리에서 장학금을 받아 미국으로 유학을 떠났으며, 동생들은 부모님과 함께 방콕에 남았다.

3) 생애사 제3챕터(1967-1986) - 마닐라 유학, 정착, 그리고 직장 생활

구술자는 필리핀에 가라는 말을 들었을 때 아버지와 엄마를 떠난다는 사실이 제일 좋았다고 했다. 처음 필리핀에 와서 아테네오대학교(Ateneo de Manila University)에 입학하려 했으나 고등학교 졸업장이 없었기 때문에 1년 동안 산토토마스대학교(University of Santo Thomas) 부속 고등학교에서 공부했다. 그때부터 구술자는 공부를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했다. 필리핀에서 학교에 들어가 보니 자신이 다른 필리핀 사람보다 우월하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했다.⁴⁾ 자신은 태국에서 고등학교를 이미 다녔다는 것과 아버지가 유엔기구에서 일하고 있다는 것이 그러한 우월감의 이유였다. 1년 후 아테네오 대학에 입학한 후 기숙사 생활을 하면서 공부도 열심히 한 결과 좋은 성적을 받았다. 그러나 전공(비즈니스)과 생활환경에 흥미를 느끼지 못하고 인근에 있는 필리핀국립대학교(University of the Philippines, 이하 UP)로 전학을 했다. 구술자는 자신의 인생이 급격

4) 당시 필리핀의 교육과정에 따르면, 초등교육 6년, 중등교육(고등학교) 4년을 이수한 후 대학에 들어갔으므로, 중등교육 과정(중학교·고등학교)이 6년인 우리의 기준으로 보면 필자는 고등학교 1학년 연령대의 학생들과 함께 공부한 것이다.

하게 변화하는 특징이 있었다고 했다. UP에서는 공부와 운동도 모두 열심히 했다고 한다.

구술자는 대학 4학년 때인 1971년에 필리핀 여성과 결혼을 했다. 같은 학교에 있던 한국 유학생의 소개로 알게 되었는데, 만난 지 한 달 만에 결혼을 결심했다고 했다. 갑작스럽게 결혼하겠다고 하니, 아버지가 반대했고, 결국 필리핀 양아버지만 모시고 결혼식을 했다. 1년 후에 아버지가 필리핀에 와서 와이프를 만나보고, 아버지의 마음에 꼭 들어 했던 것으로 기억했다. 구술자는 자신이 한국여자와 결혼하지 않은 것을 잘 했다고 생각한다. 아마 한국여자는 자신과 잘 맞지 않았을 것이라는 이유에서였다. 구술자는 결혼하면서 필리핀 영주권을 받았고, 이후 1976년에 시민권도 취득했다.⁵⁾ 구술자는 대학(UP)을 졸업한 후 아버지의 도움으로 마닐라에 있는 아시아경영대학원(Asian Institute of Management, AIM)에 들어가 경영학석사학위(MBA) 과정을 시작했고, 아내는 UP에서 강의하면서 부업으로 작은 가방공장을 운영했다. 구술자는 그 때부터가 자신의 인생에서 중요한 시기였다고 했다. 결혼도 했고, 공부는 따라가기 힘들고, 모든 조건이 어려운 가운데 죽을 고생을 해서 AIM을 졸업한 것이 구술자에게는 중요한 의미이자 성취였던 것이다.

구술자는 AIM을 졸업한 후 1년 정도 필리핀 정부(건설부)에서 일하다가 나와서 SGB라는 컨설팅회사(회계사 사무소)에 입사했다. 그 회사에서는 구술자를 훈련시켜 한국에 보내려고 했고, 1년 쯤 지난 후 한국에 파견을 보냈다. 서른 살쯤 되던 1978년에 구술자는 15년 만에 한국에 들어가 1달가량 지냈다. 그때 구술자는 한국에서는 못 살겠구나 하는 마음을 먹었다고 했다. 그가 한국에서 받은 인상은

5) 마르코스 대통령은 1976년 중국과의 외교관계를 맺으면서 필리핀에 거주하는 중국인들을 차별하지 않는다는 의미로 자격조건에 해당하는 필리핀 거주 외국인들(주로 중국인이 대상)에게 시민권을 제공한다는 대통령령(PD no. 836)을 1975년 12월 3일에 공포했다.

아마도 당시의 한국 시대상을 말해준다.

외국에서만 살다가 한국에 가니 답답해서 못살겠다는 생각이 들었어. 한국의 억압적인 시스템이 마음에 들지 않았지. 한국에 가서 보니 내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 보이지를 않았고, 사람들이 일하는 것을 보니까, 별로 일을 하지 않는데, 밤늦게까지 있는 것을 보고 이상하게 생각했어. 같은 급에 있는 사람에게 물어봐도 그 사람도 잘 모르는 것 같았어...

구술자는 한 달 후 필리핀에 돌아와서 자신이 이 회사에 별 도움이 되지 않겠다는 생각에 퇴사를 결심했다고 했다. 퇴직 후 구술자는 특별히 할 일도 없고 해서 다시 UP의 경영학 박사 과정에 들어갔다. 거기서 급우 중 하나의 소개로 동남아시아수산물연구소(Southeast Asia Fisheries Development Center-태국, 필리핀, 말레이시아, 인도, 베트남, 싱가포르 등이 회원국이고 일본에서 주도해서 만든 국제기구)에 들어갔다. 주로 하는 일은 각국에 양어장을 만들어 양식하는 것인데, 일본에서 식량문제 해결을 위해서 만든 것이다. 구술자는 그곳에서 근무하면서 그 기관 책임자들의 부정부패와 맞서 미디어 전쟁, 법정 싸움, 협박 등과 같은 많은 경험을 했다고 했다. 구술자는 자신의 한계를 인정하고 결국 사직을 결심했으며, 이후 무슨 일을 해야 할 것인가를 고민하다가 1986년 8월경에 갑자기 ‘한국 사람이면서 또한 필리핀 사람’이라는 자신의 특이성을 활용할 수 있겠다는 생각에 사직서를 제출했다고 했다. 시기적으로 그때는 1986년 2월 시민혁명(People Power)으로 마르코스 독재정권이 붕괴되고, 그 뒤를 이어 아키노 민주정권이 들어선 전환기이기도 했다.

4) 생애사 제4챕터(1986-2019) - 사업가로서의 새로운 인생

구술자는 동남아시아수산물연구소를 퇴직한 후 집에 머물면서 아내가

운영해 오던 가방공장의 일을 돕기 시작했다. 아내가 부업으로 10년 넘게 운영해 왔지만, 실상은 겨우 유지만 하는 상태였다. 구술자는 공장의 청소부터 시작했고, 가방사업을 현대화시켜야겠다고 결심하면서 한국과 다시 관련을 맺게 되었다고 했다. 그 일을 시작하면서 아내와 갈등이 생겨났고, 그러한 상황 속에서 서로를 더 잘 알게 되었다고 했다.

우리 와이프는 “내가 하는 일에 와서 왜 네 마음대로 하느냐” 그거지. 와이프와의 갈등(conflict)이 아주 중요했어. 그게 나와 우리 와이프의 퍼스널리티 싸움이었지. 나도 우리 와이프와 같이 독단적(assertive)이어서 서로 나대로 해야 한다고 주장했지. 우리 와이프는 내가 왕이기 때문에 내 마음대로 해야 한다고 생각해. 처음 와서는 서로 각자의 일을 하면서 상관없이 지냈지. 내가 구조를 바꾸고자 하는 것은 내 돈을 써서 하니까 말을 하지 않았어. 그러다가 한국을 들락날락하면서 한국의 가방산업에 대해 보고 기술을 가지고 들어와 우리 가방공장을 현대화시켰지. 가방의 질이 좋아지니 잘 팔리기 시작했어. 우리 와이프는 장사를 잘하니 가방을 잘 팔았고, 그때부터 돈이 쌓이기 시작했어. 그래서 새로운 건물도 올리게 되고, 우리 사는 집도 늘어났지. 어찌어찌하다가 대형 쇼핑몰(SM)에 입점하게 되면서 사업이 크게 확장되었어. 한 15년 하다 보니 회사 이름도 알려지고 사업도 더욱 확장되었지. 이 집들도 다 내가 지은 것이야. 그게 내겐 아주 중요한 일이었지.

구술자가 처음으로 가방 사업을 하는 한국인을 만나게 된 것은 우연이었다고 했다. 골프를 치다가 알게 된 한국인이 마침 가방을 수출하는 사람이었다. 그 사람에게 한국에 가서 가방 만드는 것을 봐도 되겠냐고 물었더니 오라고 했다는 것이다. 그래서 한국에 들어가 대전공장에 가서 가방 만드는 것을 배웠고, 그 후 약 15년 동안 청계천을 들락날락하면서 재봉틀, 재료, 등을 들여와 회사를 키웠다. 그 결

과 이제는 직원이 350명 정도 되며, 매장도 65개나 되는 제법 규모있는 회사가 되었다. 아들과 딸은 인근에서 독립적으로 사업을 하고 있지만 함께 가방사업을 돕고 있다. 예식장을 운영하는 딸 부부는 회사의 광고를 주로 맡아서 하고, 컴퓨터 회사를 운영하는 아들 부부는 매장의 판매관리를 맡고 있다. 구술자는 한국인과 사업상 관계하면서 나름의 인상을 가지게 되었다.

한국인은 주로 가방을 하는 사람들과 일을 하는데, 신용 있는 가방원단을 생산하는 회사를 찾는 게 중요했었지. 그런 회사를 찾는 데 거의 5년 정도 걸렸어. 한국인과 일하는 데 애로점은 신용이 없어서 믿을 수가 없다는 거지. 가보면 물건도 잘 나오고 회사도 큰데 한 순간에 공장이 망하는 경우가 있었지. 나도 한 번 당할 뻔했어... 필리핀 정부가 부탁해서 한국의 중소기업을 필리핀에 유치하기 위해 2년 동안 왔다 갔다 했지. 여러 팀이 한국에 가서 중소기업 사장들을 100명 정도 불러놓고 유치 목적에 관해 설명도 했는데, 그 사람들이 너무나 모른다는 것을 알았어. 아무런 계획도 없이 그냥 정부가 하라니까 무언가 있겠지 하고 온 사람들이 대다수였던 것 같았어.

구술자는 50살이 되었을 때 회사도 안정되고 자신이 더는 회사에서 크게 할 일이 없다는 생각에 다시 대학(UP)에 들어가 공부를 시작했다. 교육학 석사과정에 들어가 공부하면서 다른 대학(FEU)에 강사로 나가 심리학 강의를 했다. 다시 공부를 하면서 자신이 무엇을 하든지 배우는 것이 있어야지 재미를 느끼지, 그렇지 않으면 재미가 없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고 했다. 구술자는 자신에게 마지막으로 중요했던 프로젝트로 이태리에 가서 가방의 패턴을 만드는 방법을 배웠던 것을 꼽았다. 구술자는 공장에서 나오는 가방이 왜 반듯하지 않을까를 오랫동안 고민했다고 했다. 그래서 이태리에 가야겠다는 생각을 전부터 했는데, 가면 그것을 배울 수 있을지 없을지 확신이 없어서

미루어 왔다는 것이다. 결국, 결심을 하고 얼마 전에 이태리에 가서 운 좋게 75살 된 노인한테 그 방법을 확실히 배워서 돌아왔다. 공장 직원들에게 배워온 기술을 가르쳤고, 지금은 가방이 중국산보다 낮게 나온다고 했다. 그것이 회사에 대한 자신의 마지막 기여(contribution)라고 했다.

2. 김찬용의 민족정체성에 대한 이해

1) 구술 속에 담긴 김찬용의 민족정체성

구술자는 자신의 삶에 대해 후회는 없고 축복받은 삶을 살아왔다고 했다. 특히 아버지를 따라다니면서 여러 가지 언어를 접하게 된 것이 자신에게는 특별한 행운이었던 것으로 생각했다. 구술자는 음악을 듣는 것을 좋아하는데, 이태리어나 한국어 혹은 영어나 스페인어로 된 음악을 들어도 그 가사의 감정을 느낄 수 있다고 했다. 자신이 여러 가지 언어를 하게 됨으로써 그만큼 다양한 문화를 이해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이다. 구술자는 자신의 정체성 규정에 있어서 민족이라는 것은 그리 중요하지 않다고 진술했다.

나는 디아스포라라는 개념이 없어졌지. 내가 한국에서 태어났으니 나는 한국 사람이다라는 개념이 없어. 그냥 내가 한국에 가서 한국말을 하니가 가방에 대해 배우는데 편리하다라는 점이 나에게 중요하지. 필리핀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야. 미국을 가든 어느 나라를 가든 다 똑같아. 감정적인 것은 없다고 봐. 그런 쪽으로는 생각을 안 하는 거지.

이처럼 구술자는 민족정체성이란 개념 자체에 대해 그다지 의미를 두지 않는 것을 볼 수 있다. 굳이 자신의 정체성을 말하라고 한다면 ‘국제인’이 가장 적합할 것이라고 했다. 이러한 구술자의 성향이

그의 삶의 여정 속 어디에서 비롯되었는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우선, 민족정체성은 일반적으로 지배자 혹은 국가가 구성원들의 결속력을 강화시키기 위하여 강조하고, 또한 사회화 교육 과정 속에 포함시켜 내재화시킨다. 구술자의 경우에는 일찍이 조국을 떠나 생활했으므로 사회화 과정에서 국가의 역할을 크게 받지 않았다. 더구나 유년기를 보낸 조국에 대한 기억이 그다지 긍정적이지 않다는 점에서 감정적인 소속감(혹은 애착심)도 부족한 것을 볼 수 있다. 필리핀에 정착해 사는 다른 한인 재외동포의 사례를 통해 이와 유사한 이주 1.5세대 혹은 2세대의 정체성에는 가족의 영향이 큰 것을 알 수 있다(김동엽 2018). 즉 조국을 떠나 해외에서 어린 시절을 보내는 경우 부모님이 조국의 권위를 대신하여 자녀들의 민족정체성 형성에 일차적인 영향을 준다. 따라서 부모님의 조국에 대한 생각과 부모의 자녀에 대한 영향력, 그리고 부모와 자녀와의 친밀도 등 다양한 측면을 살펴봐야 할 것이다. 구술자는 자신의 아버지에 대해 일본 식민지 하에서나 미군의 군정시대, 그리고 독립 후 한국정부에서도 엘리트로 살면서 시류를 잘 탄 ‘기회주의자’(opportunist)로 표현한 적이 있다. 아버지는 언제나 자신의 필요를 충족시켜주는 사람이었지만 자신과 ‘정’이 있는 관계는 아니었다는 점은 조국의 권위를 대신하는 아버지에 대한 감정적 교감이 부족했던 것을 볼 수 있다.

구술자는 성장 과정에 대한 진술 속에서 부모님으로부터 한인 정체성과 관련된 어떠한 기억이나 경험도 언급하지 않았다. 또한, 부모님에 대한 언급에서는 주로 부부싸움이나 자신이 혼난 기억 등 부정적인 측면이 대부분이다. 이러한 측면에서 구술자는 국가와 가족의 영향보다는 자신의 경험에 기초한 독립적인 주체로서 정체성을 확립한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구술자가 해외 생활을 시작하면서 한국인으로서의 자신을 지각하게 된 것은 이태리에서의 인종적인 차별 의식을 느끼면서 가진 열등감이었을 것이다. 그러한 인종적 열등감

에 대한 기억은 내면화 되어, 미국 유학을 권유받았을 때 이를 회피했던 이유가 되었을 것이다. 방콕에서의 생활과 마닐라에서의 생활은 구술자에게 그러한 인종적 차별의식에서 벗어날 수 있는 공간이었으며, 또한 조국의 위상보다 유엔에서 근무하는 아버지의 위치가 어린 시절 자기 우월성의 기초가 되었음을 알 수 있다.

이주지 필리핀이라는 공간은 구술자에게 있어서 제도적인 불편함이나 소통의 어려움이 없는 평안한 공간이었을 것이다. 필리핀은 이주민으로 만들어진 국가가 아니므로 특별한 경우가 아니고는 시민권을 발급하지 않는다. 구술자는 필리핀 여성과 결혼함으로써 영주권을 취득했고, 1976년에 필리핀 시민권을 취득했다. 이를 통해 구술자는 필리핀에서 생활하면서 어떠한 법적 차별이나 제한을 받지 않을 수 있었다. 그렇다고 구술자가 필리핀인으로서의 정체성을 가지려고도 하지 않았다. 일반적으로 변화하는 ‘자기성’으로서의 정체성은 개인의 합리적 선택과 연결된다. 즉, 선택권을 주면 자신에게 더 유리한 방향으로 자신의 정체성을 정립해 간다. 필리핀 한인동포 국가 정체성을⁶⁾ 시기별로 나누어 살펴본 연구(김동엽 2018)에 따르면, 필리핀과 한국의 경제적 위상 변화는 필리핀 이주 한인들의 국가 정체성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난다.

구술자는 1967년 필리핀으로 이주하여 50년이 넘도록 생활하면서 필리핀 현지어를 배우려고 하지 않았고, 오직 근래 들어서 필리핀어를 배워야겠다는 마음이 들었다고 했다. 필리핀에서는 사용하는 언어에 따라 계층이 구분되기도 하는데, 상류층으로 갈수록 더 세련된 영어를 구사하는 경향이 있다. 이는 그들이 외국에 자유롭게 드나들 수 있는 경제적 여건을 대변하는 것으로 해석되기도 한다. 비슷한 맥락에서 필리핀 사람들은 자국 거주 외국인이나 외국계 혈통에 대

6) 해당 논문에서 사용한 ‘국가 정체성’은 개인이 특정 국가에 대하여 가지는 소속감과 일체감을 나타내는 용어로 사용하였다(김동엽 2018: 292).

해 우호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 구술자는 영어를 가장 편한 언어로 삼고 있으며, 또한 현지인들도 부러워할 정도의 교육경력과 경제적 여건을 누리고 살았다. 구술자는 비록 한국 태생이지만 필리핀의 주류사회의 일원으로 살았음을 그의 생애사 진술을 통해 알 수 있다. 구술자는 동남아수산연구소에 근무하면서 필리핀 정부의 고위층과 지속적인 관계를 맺었고, 또한 1986년 필리핀 민주화 이후 아키노 정부의 요청으로 한국기업을 필리핀에 유치하는 일에 나서기도 했다.

이처럼 구술자는 거주지 필리핀에서 합법적인 필리핀 시민권자로서 활동에 제약을 받지 않고, 현지인과의 관계에서도 존경받는 외국계 시민으로서 필리핀 주류사회의 벽을 느끼지 않고 살았음을 볼 수 있다. 구술자는 자신에게 가장 중요하게 생각되는 것은 어느 민족이나 국민인가가 아니라 ‘정의’(justice)라고 했다. 그는 스스로가 ‘프로레타리아트’ 정신을 타고났다고 했다. 구술자가 자신의 마지막 프로젝트로 이태리를 방문하여 가방제작 기법을 배워온 얘기를 하면서 자신이 이태리에서 머문 숙소를 거론했다. 구술자는 인터넷에 있는 숙소 공유사이트에서 몇만 원 되지 않는 방을 얻어 생활했다고 했다. 필자가 사는 부산을 방문했을 때에도 본인이 직접 허름한 골목길에 있는 모텔을 잡아 머물렀다. 이러한 구술자의 단편적인 모습에서 나타나는 생활태도는 구술자와 10년이 넘도록 매주 함께 골프를 치면서 친밀한 관계를 유지한 K씨의 증언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었다. K씨에 따르면, 구술자는 골프를 칠 때에도 너무나 검소한 차림이어서 함께 하는 동반자들이 부끄럽게 느낄 정도라고 했다. 하지만 구술자는 주위에 어려운 사람들에게 많은 도움을 주고 있다고 했다. 자신의 가방공장에서 일하는 직원들에게 부인 몰래 금전적인 도움을 주기도 하고, 골프 연습장에서 일하는 아이들에게 장학금을 주기도 한다고 했다. 이상의 몇 가지 사례는 구술자가 자기 정체성의 일부로

삼고 있는 ‘프롤레타리아트’ 정신에 기반하여 자신의 삶을 살아온 것을 짐작하게 한다. 이와 같이 재외동포로서 구술자가 특정 민족이나 국가에 기초한 정체성보다 국제인으로서 스스로 가치를 부여한 ‘프롤레타리아트’ 정신에 입각한 삶을 더욱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그의 성장배경과 필리핀이라는 이주환경에서 만들어진 독특한 자기 지향성으로 볼 수 있다.

2) 비교적 관점에서 본 김찬용의 민족정체성

한인 재외동포 민족정체성에 관한 연구는 주로 주요 이주국들의 1.5나 2세대를 대상으로 이루어졌거나, 특수한 이주 맥락을 가지고 있는 국가들을 중심으로 이루어졌다. 여기서는 중국, 미국, 일본, 그리고 구소련과 독일에 거주하는 한인 재외동포의 민족정체성에 관한 연구를 간단히 소개하고, 이를 필리핀 재외동포인 김찬용의 사례와 비교해 보고자 한다.

우선, 식민지하에서 탄압을 피하여 자의적으로 혹은 일제의 대륙 침략을 위한 병참기지화 목적의 이주 정책에 따라 중국으로 이주한 한인(조선족)들의 민족정체성은 중국 공산당의 민족평등 정책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강수옥 2013; 박경용 2014; 박창욱 1996; 박경용·임경희 2016; 이은정 2019; 이현정 2001). 이현정(2001)의 조선족 정체성에 관한 연구에 따르면, 조사지 10대 조선족 청소년들은 조선말보다 한어를 구사하는데 더 익숙하고, 음식, 옷, 사고 등에 있어 더 이상 한족과 구별되는 문화적 차이를 드러내지 않는다. 그러나 이들 역시 한족과 구별되는 조선족 정체성을 인식하고 있는데, 이들이 구별 근거로 제시하는 것이 결코 ‘소수 민족’으로 규정됨으로써 갖게 된 사회·경제적 차별이 아니라 오히려 음식·언어와 같은 ‘원초적인 요소’라는 점이다.

미국에 거주하는 한인들의 민족정체성은 다양한 측면에서 연구되

고 있으며, 주로 세대 간의 차이와 백인 주류층과의 관계 혹은 타 인종과의 관계성이 많은 영향을 준 것으로 나타난다(김왕배 2003; 박준규 2002; 류지영 2005; 이석인 2015; 홍순형 1996). 미국은 1903년 하와이 사탕수수 농장의 노동자로 진출하기 시작하면서 이후 아메리칸 드림을 쫓아 조국을 떠난 한인들의 목적지가 되었다. 이민자로 만들어진 국가 특성상 미국에 거주하는 한인들의 민족정체성은 이민 2~3세대로 이어지면서 인종적 차이로 인한 차별의식과 소수 민족으로서 낮은 자아의식에 영향을 받았다. 김왕배(2003)의 연구에 따르면, 특히 1.5세대는 이주 후 언어의 장벽을 다년간 경험하고, 소수 민족으로서 사회적 차별을 인지함으로써 ‘민족정체성’에 더욱 큰 혼란을 겪는다. 그 결과 ‘주변인’으로서의 의식이 강하게 형성된다는 것이다. 이들은 백인 주류층과의 삶의 구조적 균열, 타 인종들과의 반목과 갈등 속에서 주체로 살아가기 위해 그들 나름의 다양한 방법으로 자신들의 민족정체성을 형성하고자 한다.

재일한인(재일동포)의 민족정체성은 해방과 분단이라는 조국의 현실 속에서 분리되고, 민족과 국적에 따른 일본 사회의 차별과 배제를 경험하며 2, 3세대로 이어질수록 한민족에 대한 정체성이 희미해져 가는 것으로 나타난다(김범수 2018; 남근우 2011; 박권일·서경식 2006; 서경식 1996; 임영언 2007). 재일동포 지식인 서경식 교수는 일본 사회에서의 편견이나 차별은 ‘조선민족’ 전체를 향한 뿌리 깊은 것으로 본다(서경식 1996: 65). 그에게 재일동포로 살아간다는 것은 “깨어지지 않는 유리벽에 고립되어 있는 것”이라고 말한다. 끝없이 국민으로서의 자격을 심문받고, 의심받고, 배제당하는 삶이라는 것이다(박권일, 서경식 2006: 53). 재일한인 청소년의 민족정체성을 연구한 임영언(2007)은 그들의 경험과 처한 환경에 따라 다양하고 복잡한 정체성이 존재하고 있지만, 재일한인 개개인들은 재일이라는 독자적인 정체성을 추구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

구소련은 일제의 식민지 상황을 피해서 혹은 노동자로 많은 한인들이 연해주와 사할린으로 이주한 지역이다(박경용 2014; 유 계라십 1996). 1930년대 스탈린 정부 하에서 실시된 강제이주 정책에 따라 중국과는 달리 집단으로서 한민족 공동체를 유지할 영토적 기반을 상실했다. 한인(고려인)들은 중앙아시아와 카자흐스탄의 광활한 지역에 흩어져 살면서 모국어를 잃고 민족의식이 희미해져 갔다(유 계라십 1996). 구소련 한인들의 민족정체성은 그 맥락에 있어서 중국과 흡사하며, 국가의 민족정책에 따라 많은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볼 수 있다. 한편 독립 이후 1960년대 저개발국에서 선진국으로의 노동이주로서 ‘과독광부’와 ‘과독간호사’가 있으며, 이들이 계약 기간이 끝나고 현지에 정착하면서 유럽지역에 한인 재외동포의 원조가 되었다. 이들에 관한 연구는 연로한 이주 1세대가 생존해 있고, 또한 자발적 이주라는 특성 때문에 개인에 대한 생애사를 중심으로 ‘자기성’으로서의 정체성에 주로 초점이 맞춰져 있다(이효선·김혜진 2014; 남혜경·김영순 2018; 손대원·윤서옥 2017; 양영자 2013a, 2013b, 2016). 이들의 정체성은 미국 이민 1세대와 흡사하게 사회구조, 즉 인종적인 차이로 인한 차별과 주류사회에 제대로 통합되지 못하는 주변인으로서의 정체성을 드러낸다.

이상과 같은 주요 한인 재외동포에 관한 연구와 비교해 필리핀 한인 재외동포에 관한 연구는 아직 초보 단계에 머물러 있다(김동엽 2009, 2018; 김민정 2014, 2015; Kutsumi 2007). 더구나 한인 1.5세대 혹은 2세대에 대한 연구는 거의 찾아볼 수 없다. 기존의 연구들 중에서 김동엽(2009)은 한인의 필리핀 은퇴이주에 관한 것으로서 은퇴자들의 이주와 적응에 관한 내용을 다루고 있다. 김민정(2014, 2015)은 1950년대 필리핀으로 결혼이주 한 여성들을 인터뷰하여 분석한 연구로서, 세월이 흘러 희미해진 자신들의 삶을 회고하고 재해석하는데 초점을 두고 있다. 한편 카즈미(Kutsumi 2007)는 1970년대 이후

필리핀에 이주한 한인들의 조직을 연구한 것으로서 필리핀 한인사회의 구성과 분화를 다루고 있다. 이상의 연구들이 주로 필리핀 이주 한인들의 이주 맥락과 이주지 필리핀에서의 적응과 관련된 것으로서 재외동포 민족정체성에 관한 내용을 유추하기는 힘들다.

한편 조국인 한국에 대한 소속감과 일체감을 중심으로 필리핀 이주 한인들의 국가 정체성 문제를 다룬 김동엽(2018)에서는 비록 초점은 다르지만, 필리핀 한인 재외동포 민족정체성의 특징을 살펴볼 수 있다. 주로 이주 1세대가 인터뷰 대상자들이었지만, 인터뷰 질문 중 이주민 자녀들의 국가 정체성 형성에 관한 부분에서 제한적이거나 필리핀 한인 1.5세대와 2세대의 민족정체성에 대해 유추할 수 있다. 위의 연구에서 필리핀 한인 재외동포 부모들은 자녀들에 대해 한국인이나 필리핀인으로서의 정체성보다는 선망하는 국가인 미국 혹은 국제적 정체성을 형성하도록 유도하는 것을 볼 수 있다. 특히 1990년대 이전에 이주한 한인들은 자녀들을 미국에 유학 보내고, 그곳에서 시민권을 취득해 정착하는 것을 성공적인 자녀교육으로 간주함을 볼 수 있다.⁷⁾ 미국에서 유학하고 필리핀으로 돌아왔거나 혹은 필리핀에서 학업을 마친 경우에도 한인 자녀들은 필리핀에서 영어를 자유롭게 구사하는 한국계 외국인으로서 사회적으로 차별의식보다는 우월의식을 갖고 있다. 이는 필리핀에 장기 거주하는 한국인들의 생활이 대부분 필리핀 중상류층의 생활패턴을 쫓아가며, 이러한 교민들의 생활수준은 필리핀 현지인들의 관점에서 보면 선진국에서 온 외국인으로서 당연한 것으로 본다.

구술자 김찬용의 사례가 필리핀 한인 재외동포 민족정체성을 대

7) 최근에는 항공노선의 확장과 인터넷과 같은 통신의 발달로 인하여 거주 공간 자체가 자신의 정체성에 크게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경향이 있다. 특히 필리핀 국적 취득이 용이하지도 선호하지도 않는 상황에서 필리핀 한인들은 비록 생계를 위하여 필리핀에 거주하지만 한국과의 관계는 긴밀히 유지하고 있다. 특히 해외거주자 자녀들에 대한 대학 특례입학 제도를 활용하여 자녀들을 한국의 대학으로 보내려는 양상도 나타나고 있다.

변한다고 볼 수는 없다. 재외동포 민족정체성은 거주지의 환경뿐만 아니라 자신의 가정환경과 성장배경, 그리고 거주지 필리핀에서의 경제적, 사회적 위치 등 다양한 측면이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그러나 거주지 필리핀 정부의 외국인에 대한 정책과 현지 주류사회와의 관계는 다른 필리핀 한인동포들이 동일하게 경험하는 것으로서 필리핀 한인 재외동포 민족정체성 형성에 중요한 영향을 준다고 볼 수 있다. 합법적인 이민을 받아들이지 않는 필리핀 정부의 정책과 함께 특히 1970년대 이후 한인 이주자들은 필리핀이 떠나온 조국보다 후진국이라는 일반적인 생각으로 인해 필리핀 시민으로 동화되려는 경향이 현저히 약하다. 이는 필리핀 한인 재외동포가 한국 국적을 포기하고 필리핀 국적을 취득할 수 있는 상황에서도 여전히 한국 국적으로 유지하고 있으며, 자녀들의 경우에도 한국 혹은 미국 국적자로 필리핀에 사는 경우가 많은 것을 통해서도 알 수 있다. 김찬용의 경우 가족과 함께 청소년기를 해외에서 보내면서 한인으로서의 민족정체성이 성장하지 않았음을 볼 수 있다. 또한, 성인이 되어 이주한 필리핀에서 현지인과 결혼하고 취득한 필리핀 국적에 따라 자신의 정체성을 변화시키지도 않았다. 이는 필리핀이란 이주 공간이 민족정체성을 강요하거나, 이에 따라 차별이나 불이익이 주어지지 않았기 때문일 수도 있다. 그러나 필리핀 여성과 결혼하여 필리핀에 정착해 사는 한·필가족 자녀들의 정체성은 구술자의 경우와 유사한 것을 볼 수 있다. 김동엽(2018)에 따르면, 국제결혼을 해서 필리핀에 사는 가정의 자녀들은 대체로 필리핀 국적을 소지하고 외국계 필리핀인으로서의 정체성을 가지는 것으로 나타난다. 김찬용의 두 자녀도 한국어를 전혀 하지 못하며, 한국인이라기보다는 외국계 필리핀인으로서의 정체성이 더 강한 것을 볼 수 있다.

필리핀의 경우 오랜 식민지 과정을 거치면서 인종적인 혼합이 많이 이루어졌다. 그리고 이러한 인종적 혼합에 대한 일반적인 인식은

부정적이기보다는 긍정적인 경향이 강하다. 이는 오늘날 필리핀의 주류사회에 스페인계와 중국계 후손들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현상과도 관련이 있다고 볼 수 있다. 이처럼 필리핀 사회가 외국계 혈통에 대한 거부감이 없고 오히려 선망하는 상황에서 이주 한인들은 굳이 필리핀 국가와 사회에 일체감을 가질 필요를 느끼지 못한다. 더구나 필리핀 사람들은 한류를 통해 한국에 대해 높은 호감을 가지고 있으며, 자국민 노동자를 파견하고 결혼이주로 신부를 보내는 한국에 대해 선진국으로 인식하고 있다. 이러한 거주지 필리핀의 환경은 김찬용을 포함한 필리핀 한인 재외동포들이 차별의식보다는 오히려 우월의식을 가지게 만드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거주지 필리핀의 이와 같은 특성은 비교적 관점에서 중국이나 구소련처럼 다민족 사회의 통합을 위한 정부의 소수민족 정책이 한인 재외동포 민족정체성에 영향을 준 것과는 차이가 있다. 또한, 조선족처럼 집단으로서의 한인 재외동포 사회가 스스로의 정체성을 유지하기 위한 다양한 노력도 필리핀에는 크다고 볼 수 없다. 미국이나 유럽처럼 자신의 의지와 여건에 따라 시민권을 취득하고 주류사회의 일원으로 합류하기를 선망하는 상황과도 차이가 있다. 또한, 인종에 의한 차별의식이나 소수민족 간의 경쟁의식이 존재하지 않는 것도 차이로 볼 수 있다. 재일동포의 경우처럼 한인이라는 사실이 사회적으로 부정적이고 차별적인 요소로 작용하지 않는다. 또한, 거주지 국적의 취득 여부를 놓고 고민하는 상황이나 주류사회의 차별에 대한 우려 때문에 한인으로서의 정체성을 숨겨야 하는 상황도 필리핀의 거주 현실과는 다르다.

거주지 필리핀은 다양한 측면에서 기존의 한인 재외동포가 거주하는 국가들과 다른 거주 환경을 제공하고 있다. 이처럼 다른 거주지 공간은 필리핀 한인 재외동포의 민족정체성이 기존의 다양한 연구가 이루어진 한인 재외동포 거주국들의 경우와 구별되는 이유가 된다. 김찬용

의 사례는 필리핀 한인 재외동포 민족정체성의 일면을 보여줄 뿐 전체를 대변하지는 않는다. 그러나 자신의 성장배경이라는 특수성과 필리핀이라는 거주지 공간이 제공하는 일반성이 혼합되어 나타난 사례로 볼 수 있다.

IV. 맺음말

본 연구에서는 필리핀 한인 재외동포 김찬용의 생애사 인터뷰를 분석하여 그가 가지고 있는 민족정체성의 특징을 살펴보았다. 구술자가 자신의 민족정체성을 한인이나 필리핀인에 두지 않고 국제인으로 간주하는 것은 탈국가화 성향을 드러내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러한 탈국가화 성향을 지니게 된 배경을 그의 생애사적 관점에서 보면 개인적인 요소와 구조적인 요소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볼 수 있다. 개인적인 요소로는 어려운 시절에 경험한 조국의 현실과 불화가 잦았던 부모에 대한 부정적 이미지, 그리고 청소년기 시작된 외국 생활을 통해 인종적인 차별에 대한 경험 등 조국, 가족 그리고 성장배경에서 형성된 독립적인 주체의식이 탈국가화 성향의 형성에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인다. 구조적인 요인으로는 성장 과정에서 민족정체성을 강요하는 주체인 국가의 역할이 부재하였고, 해외 생활에서 국가의 역할을 대신할 부모의 노력도 부재했던 것으로 볼 수 있다. 또한, 필리핀이란 이주지 공간이 한인 혹은 필리핀인으로서의 정체성을 강요하지 않았던 것도 이러한 탈국가화 성향의 형성에 작용한 것으로 볼 수 있다.

필리핀을 포함한 대부분 동남아 국가들은 통상적인 이민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제도적인 측면과 경제적으로 우리나라보다 후진국이라는 인식에 따라 한인동포 사회가 장기체류 교민들로 구성되어

있다는 특성을 공유한다. 이러한 점에서 동남아 한인 재외동포 민족 정체성이 기존에 많은 연구가 이루어진 주류 이주지들의 사례와 차이점을 발견할 수 있다. 이러한 차이점은 한인의 해외 이주와 정착 그리고 그들의 민족정체성에 관한 또 다른 관점을 제공한다는 의미가 있다. 특히 동남아는 한인 이주지로서 새롭게 부상하는 지역으로 이주와 정착 환경에 관한 보다 많은 연구가 요구되는 지역이라고 볼 수 있다. 더불어 정부 차원에서도 날로 증가하고 있는 동남아 한인사회에 대한 체계적인 관여와 민족공동체로서의 일체감을 형성하고 유지하기 위한 보다 적극적인 노력이 요구된다는 정책적 함의를 발견할 수 있다.

〈참고문헌〉

- 강수옥. 2013. “중국 조선족의 역사적 형성과 정체성.” 『디아스포라 연구』 7(1): 89-101.
- 김동엽. 2009. “동남아 은퇴이주의 실태와 전망: 필리핀을 중심으로.” 『동아연구』 57: 233-267.
- _____. 2018. “이주시기와 형태에 따른 필리핀 한인동포의 국가 정체성 연구.” 『동아연구』 37(2): 287-317.
- 김민정. 2014. “한국과 필리핀 ‘사이’: 세계화정책 이전 필리핀의 재외한인과 결혼이주.” 『한국사회학회 사회학대회 논문집』 229-231.
- _____. 2015. “1900년대 초중반기 필리핀의 한인이주에 대한 성찰적 연구.” 『사회와역사』 107: 251-284.
- 김범수. 2018. “혈육에서 경계인으로 - 1980년대와 1990년대 재일동포의 표상과 한국 민족주의.” 『정치사상연구』 24(2): 167-198.
- 김영천 · 한광웅. 2012. “질적 연구방법으로 생애사연구의 성격과 의의.” 『교육문화연구』 18(3): 5-43.
- 김왕배. 2003. “미주 한인 후예들의 민족주의-민족정체성 형성을 중심으로.” 『현상과인식』 27(12): 55-75.
- 남근우. 2011. “제일동포사회의 문화정체성에 관한 연구 - 민족, 조국 귀속성, 현실의 ‘3중 경계문화정체성’을 중심으로.” 『국제정치논총』 51(4): 159-188.
- 남혜경 · 김영순. 2018. “재독 한인국제결혼여성의 생애사에 나타난 이주의 의미.” 『교육문화연구』 24(6): 667-685.
- 데이비드 허타트 지음, 조만성 옮김. 2011. 『호미 바바의 탈식민적 정체성』 서울: 도서출판 앨피.

- 류지영. 2005. “재미한인 영재 청소년의 민족적 정체감 형성.” 『청소년학연구』 12(1): 348-370.
- 미셸 세르, 실비 그로스조프 외 9명 지음, 이효숙 옮김. 2013. 『정체성, 나는 누구인가』. 파주시: (주)알마.
- 민성은·최성호·김영천. 2017. “생애사 연구의 개념적 모형에 대한 이론적 탐색.” 『교육문화연구』 23(1): 465-500.
- 박경용. 2013. “사할린 한인 김옥자의 삶과 디아스포라 생활사 - 기억의 환기를 통한 구술생애사 방법을 중심으로.” 『디아스포라연구』 7(1): 163-196.
- _____. 2014. “한 조선족 여성의 가족사를 통해 본 디아스포라 경험과 생활사 - 1932년생 박순옥의 삶을 중심으로.” 『아시아연구』 17(3): 1-36.
- 박경용·임경희. 2016. “한 조선족 여성의 디아스포라 경험과 젠더 재구성 - 중국 칭다오 거주 P씨의 구술생애사를 중심으로.” 『아시아여성연구』 55(1): 199-236.
- 박승규. 2013. “정체성, 인간과 공간의 관계를 설명하는 노두.” 『대한지리학회지』 48(3): 453-465.
- 박신규. 2008. “국제결혼이주여성의 정체성 및 주체성의 사회적 위치성에 따른 변화 - 구미 지역의 국제결혼이주여성의 생애사 분석을 중심으로.” 『한국지역지리학회』 14(1): 40-53.
- 박권일·서경식. 2006. “서경식 도쿄케이자이대 교수 - ‘디아스포라로 살아가는 건 나의 숙명.’” 『월간말』 2006년 6월호: 48-53.
- 박준규. 2002. “복합정체성, 그 가능성과 한계 - 미국의 마이너리티 문제를 중심으로 - 미주한인의 디아스포라적 아이덴티티.” 『역사비평』 2002년 2월호: 300-321.
- 박창욱. 1996. “특집 2: 재외 한국인의 고민과 선택 중국 ‘조선족’ 어디로 가고 있는가.” 『역사비평』 1996년 5월호: 98-111.

- 서경식. 1996. “특집 2: 재외 한국인의 고민과 선택 ‘제일조선인’의 위기와 기로에 놓인 민족관.” 『역사비평』 1996년 5월호: 63-86.
- 손대원·윤서옥. 2017. 『독일 함부르크 한인들의 삶과 문화』. 서울: 국립민속박물관.
- 양영자. 2013a. “내러티브-생애사 인터뷰 분석의 실제 - 재독한인노동이주자 인터뷰를 중심으로.” 『한국사회복지학』 65(1): 271-298.
- _____. 2013b. “재독한인 노동이주남성의 젠더 정체성 - 생애사적 사례재구성 방법에 기초하여.” 『한국사회복지학』 65(3): 79-106.
- _____. 2016. “독일로 떠난 한인 간호여성의 사회운동 과정에 대한 생애사 연구 - 탈정체화의 정치.” 『비판사회정책』 53: 48-95.
- 유 계라심. 1996. “특집 2: 재외 한국인의 고민과 선택 러시아 ‘고려인’의 방향 어디서 끝나는가.” 『역사비평』 1996년 5월호: 112-125.
- 윤인진·임창규. 2008. “재미한인 차세대의 인구학적 특성과 사회경제적 지위 성취: 세대별 및 민족집단별 비교.” 『세계지역연구논총』 28(3): 409-438.
- 윤택립. 1993. “기억에서 역사로: 구술사의 이론적, 방법론적 쟁점들에 대한 고찰.” 『한국문화인류학』 25: 273-294.
- _____. 2009. “구술사 연구방법론.” 한국행정학회 학술발표논문집. 511-531.
- 이만영·김수연. 1995. “생애사(life story) 해석에 대한 경험적 연구.” 『한국심리학회지』 14(1): 85-116.
- 이석인. 2015. “한국계 미국인의 세대별 정체성 차이 분석 연구.” 『디아스포라연구』 9(1): 189-211.

- 이은정. 2019. “식민지기 만주 경험 여성의 귀환과 정체성 전략 - 구술생애사를 중심으로.” 『민족문화논총』 71: 1-33.
- 이현정. 2001. “조선족의 종족 정체성 형성 과정에 관한 연구.” 『비교문화연구』 7(2): 63-105.
- 이효선 · 김혜진. 2014. “생애사 연구를 통한 이주여성노동자의 삶의 재구성 - 파독간호사 단일사례 연구.” 『한국여성학』 30(1): 253-288.
- 이희영. 2005. “사회학 방법론으로서의 생애사 재구성 - 행위이론의 관점에서 본 이론적 의의와 방법론적 원칙.” 『한국사회학』 39(3): 120-148.
- 임영언. 2007. “재일한인청소년의 민족 정체성(Ethnic Identity)의 형성과정.” 『디아스포라연구』 1(2): 125-148.
- 조의행. 2015. “광복 70년, 한국인의 민족 정체성 연구 - 민족과 민족사가 실증된 민족 정체성.” 『현상과인식』 39(3): 111-129.
- 최인혁 · 이영학. 2015. “생애사 연구에 기반을 둔 개인 기록화 연구.” 『한국기록관리학회지』 15(4): 49-76.
- 홍순형. 1996. “특집 2: 제외 한국인의 고민과 선택 미국 ‘한인’ 사회의 분열과 갈등.” 『역사비평』 1996년 5월호: 87-97.
- 홍태영. 2011. 『정체성의 정치학』 서울: 서강대학교 출판부.
- Kutsumi, Kanako. 2007. “Koreans in the Philippines: A Study of the Formation of their Social Organization.” Miralao, Virginia A. and Lorena P. Makil (eds). *Exploring Transnational Communities in the Philippines*. Quezon City: Philippine Migration Research Network and Philippine Social Science Council.
- Portelli, Alessandro. 1991. “What makes oral history different.” in *The Death of Luigi Trastelli and Other Stories: Form and*

220 동남아시아연구 29권 4호

Meaning in Oral History. New York: State University of
New York Press.

Smith, Anthony. 1991. *National Identity*. London: Penguin Books.

(2019.10.25. 투고, 2019. 10.28. 심사, 2019.11.25. 게재)

<Abstract>

National Identity through the Oral Life History of a Overseas Korean in the Philippines

KIM Dong Yeob
(Busan University of Foreign Studies)

This study analyzes the oral life history interview data of KIM Chan Yong(a pseudonym), an overseas Korean in the Philippines, and analyzes his characteristics of national identity. KIM showed the propensity of post-national by considering his national identity as cosmopolitan rather than Korean or Filipino. From the perspective of his oral life history, this background of post-national propensity can be seen as the influence of the personal factors such as his family environment and growth background and the structural elements of the living environment in the Philippines. In particular, the Philippines provides a different living environment for overseas Koreans in various aspects in comparison with other countries such as China, Japan, and the United States, where many overseas Koreans live. This different living environment is a reason why the national identity of overseas Koreans in the Philippines is distinguished from that of overseas Koreans in other countries. His case does not represent the whole overseas Koreans in the Philippines, but it can be seen as a case where the specificity of his growth background and the generality provided by the living environment of the Philippines are

222 동남아시아연구 29권 4호

blended.

Key Words: the Philippines, Overseas Korean, National Identity,
Cosmopolitan, Oral Life History.